

# 기자의 현장감, 시인의 감수성으로 그린 '남미 이야기'

40일간의 남미 배낭여행  
윤현주 | 다큐북스 | 2만원



한국에서 가장 먼 대륙, 남아메리카. 한국의 대척점이 우루과이 일대라는 게 그 증거다. 대척점에 위치한 두 곳은 계절과 밤낮이 반대다. 남미는 지리적 면에서 한국과 정반대에 위치할 뿐만 아니라 역사·문화적으로도 가장 먼 곳에 있다. 그래서일까. 남미 여행은 한국인에게 '여행의 종결판'이자 '로망'이었다.

그런데 최근 남미를 찾는 여행객이 급증하고 있다. 여행객의 구성도 많이 바뀌었다. 과거에는 여행 베테랑인 중·장년층이 주로 찾았지만 근래에는 20~40대 관광객이 많이 늘었다. SNS 등을 통해 관련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는 데다 인터넷 환경이 좋아지면서 교통·숙박 예약이 수월해진 영향도 있지만, 가 보지 않은 미지 세계에 대한 동경과 호기심이 여행의 핵심 동기라는 점을 감안하면 남미가 여행지로 제격이라는 게 큰 이유일 것이다.

신간 '기자가 읽고 시인이 쓴 40일간의 남미 배낭여행'은 35년간 부산일보에서 기자로 활동했던 윤현주 시인이 기자처럼 발로 뛰고 시인처럼 감성을 담아낸 독특한 남미 여행기다. 현장감과 역사성, 감수성이 절묘하게 버무려진 이 책은 기자와 시인을 겸한 작가의 이력처럼 정보 전달은 기본이고, 남미의 역사와 문화, 예술이



브라질 제2의 도시인 리우데자네이루항 입구 '팡데아수카르'에서 내려다 본 리우데자네이루 해변. 지난 2012년 유네스코(UNESCO)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됐다.

유려한 문장 속에 흥건히 녹아 있다. 그야말로 취재기자의 현장성과 시인의 감수성이 만든 역작이다.

대학에서 영문학을 전공한 저자는 치열한 기자 생활 중에도 시 전문지 '서정과 현실' 신인상을 받으며 시인으로 등단했다. 시집 '맨발의 기억력'을 출간했으며, 지금도 꾸준히 시를 써 오고 있다.

이 작품의 문장을 따라가다 보면 독자 본인이 마치 남미의 어디쯤 와 있는 듯한 착각이 들 정도로 생생하다. 저자가 가장 좋아하는 시인 파블로 네루다와 남미 음악 '누에바 칸시온'을 감상하는 대목에서는 아연 감성 속으로 몰아간다. 기자이자

시인답게 깊이 있는 문체는 흔한 여행기를 넘어 본격 인문서처럼 다가온다.

우유니 소금사막의 일출을 소개하는 한 대목(142쪽), '새벽 5시가 되자 서서히 여명이 나타났다. 동쪽 하늘에 붉은 기운이 번지기 시작했다. 사막 뒤의 산을 경계로 뚜렷한 반영이 나타나 상하가 완벽한 대비를 이뤘다. 파란 하늘이 어느새 소금 호수에 내려앉아 사막도 파란색으로 변했다. 태초의 개벽이 이랬을까. 하늘과 땅이 분리되기 전, 하늘과 땅이 몸을 섞어 그속에서 생명이 태어나고, 그 생명이 자신의 유전형질대로 진화해 오늘에 이른 것은 아닐까? 나는 순간 강렬한 생명 에너지를

느꼈다. 내 속에 숨겨져 있던 생명에 대한 욕망과 본능도 활짝 깨어났다.'가 그 예시다.

잉카의 위대한 유산인 마추픽추 정상에 오른 뒤에도 저자는 인류 역사의 무상함을 서정적으로 묘사한다(96쪽). '정교하게 쌓아 올린 돌과 돌 사이 골목을 천천히 누비며 귀를 기울인다. 돌을 만져 보기도 하고 돌에 귀를 대 보기도 한다. 하지만 그 어디에도 들려오는 소리가 없다. 내 청력과 상상력의 한계 탓인가. 마추픽추의 마지막 모습을 목격한 돌은 분명 무슨 말을 속삭이고 있을 터인데... 수백 년을 천천히 오르내리는 야생 야마는 뭔가 알고

있을까나.'

빛나는 사색과 사유의 장면도 자주 읽을 수 있다. 지구온난화 영향으로 점차 녹아내리고 있는 모레노 빙하 앞에서 저자는 안타까움을 토로한다. '하지만 모레노 빙하는 지금 위태롭다. 극한의 추위가 얼음의 성체를 만들었지만 지금 같은 속도로 지구온난화가 지속한다면 반세기 안에 빙하는 소멸할 것이라고 한다. 빙하의 푸른빛이 더욱 눈부신 이유가 있었구나. 하루 끝자락의 붉은 노을빛처럼!'

책은 또 남미의 핵심 여행지만을 골라 소개하고 있어 경제적인 남미 여행을 꿈꾸는 독자에게 도움을 준다. 페루(리마, 바예스타 섬, 이카 사막/와카치나 오아시스 마을, 나스카 지상화, 쿠스코, 마추픽추, 티타카 호수), 볼리비아(라파즈, 우유니 소금사막), 칠레(산티아고, 파블로 네루다의 집, 파타고니아), 아르헨티나(우수아이아, 부에노스아이레스, 보카 지구와 레콜레타 공동묘지), 브라질(이구아수 폭포, 리우데자네이루) 등 5개국의 주요 도시와 유적지들이다.

이 외에도 볼거리는 최윤식 건축가의 스케치다. 빼어난 그림 실력을 자랑하는 최 건축가의 현장감 넘치는 스케치가 장소마다 빠짐없이 들어가 있어 여행기를 더욱 풍성하게 만든다.

책 출판 과정도 흥미롭다. 부산에 사는 저자가 당초 현지 출판사에서 출간 예정이었는데 사정상 작업이 중단됐고, 광주 지역 출판사에서 출판작업을 마무리한 것. 이른바 영호남 합동 출판이다.

박찬 기자 chan.park@jnilbo.com

## 불확실한 세계정세 속 휘청이는 경제 간파하는 법

경제학자처럼 생각하기  
에드 콘웨이 | 이화북스 | 2만2000원



경제는 불확실성이 클수록 휘청인다. 환율이 오르고 물가가 치솟으면서 서민들의 삶도 불안정하다. 경제학자처럼 생각한다면 이러한 불확실성의 시대를 읽어내며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물질의 세계'의 저자

에드 콘웨이가 경제 교양서로 돌아왔다.

저자는 경제 분야의 기자 생활을 하며 수많은 전공 서적과 논쟁을 다룬 작품을 읽어왔지만, 이 중 경제 데이터의 흐름 속에서 길을 찾으려는 사람들을 위한 책은 별로 없었다고 밝혔다. 그래서일까. 저자는 이번 신간 '경제학자처럼 생각하기'를 직접 쓰기로 결심했다고 한다.

경제학은 실업률 증가, 물가 변동 등 사회가 위기에 빠진 상황에서 더욱 주목받는다. 각국에서 발발한 전쟁과 파시즘적 철학을 지닌 지도자들의 등장으로 국제

정세의 불확실성이 큰 현재, 경제학은 이러한 사회·경제적 혼란을 이해하고 대응하는 데 중요한 도구다.

최근 세계 경제는 다양한 도전과 불확실성에 직면했는데 책에는 이를 분석하는 50가지 생각 도구가 담겼다. 경제학의 기본 원리부터 환율, 금융 시장, 보호 무역주의, 기본소득 등 현대 경제의 핵심 쟁점들을 아울러 독자들을 끌고 간다.

또 암호화화폐, 기본소득 등 최신 경제 이슈를 담아 끊임없이 변화하는 경제 속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한다.

박찬 기자

김대중의 국정 노트  
박찬수 | 한겨레출판사 | 2만원

제21대 대통령선거가 다가오는 가운데 지도자가 지녀야 할 자질과 역량이 무엇인지 답이 강구된다. 'DJ정신'은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 생전 펼쳐왔던 평화와 통합을 아우른다. 지금 대한민국은 분열과 갈등이 극단으로 잠식한 상태다. 진보와 보수를 떠나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지도자를 선택하는 게 중요한 이유다. 국민들을 12·3 계엄과 두 차례의 대통령 탄핵 트라우마에서 벗어나게 할 진정한 지도자가 나와야 한다. 청와대 출입 기자 출신인 저자가 엮어낸 이 신간에는 22년 만에 공개되는 27권의 DJ 친필 메모 등이 담겼다. 지난 2000~2002년 당시 김대중 대통령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본 작가는 우리 시대가 필요로 하는 지도자란 이런 인물이어야 한다고 힘주어 외친다.



온몸일으키기  
차현준 | 문학과지성사 | 1만2000원

뚜렷한 개성과 젊은 감각으로 빛어낸 언어들이 온몸 일으키기를 하듯 분주히 움직인다. 지난 2022년 문학 과사회 신인문학상에 당선돼 본격적인 작품 활동을 시작한 차현준 시인의 첫 시집이 출간됐다. 차 시인이 떠난 시적 세계는 새로운 공간에서 들려오는 여딘가 다른 언어들이 익숙해지는 순간으로 능숙하게 안내하는 형식이다. '시'가 가진 자유를 살피고 따라가고 싶었다고 밝힌 그는 독자들에게 '시도'의 중요성을 되짚어 주기도 하고 이분법적으로 규정짓는 세상에 의심을 던지 게끔 유도하기도 한다. 패기 넘치면서도 노련한 그의 시어들로 끊임없이 생성되는 수다들. 책장을 넘기다 보면 마치 정해진 한계를 극복하고 기지개를 켜려고 일어서는 본인을 발견하게 될지도 모른다.



노화도 설계하는 시대가 온다  
박상철 외 2인 | 매일경제신문사 | 2만1000원

인공지능(AI)과 바이오혁명이 바꾸는 노화의 미래가 담겼다. 40여년간 노화 연구를 해 온 박상철 교수, 국내 최초 스마트병원 설계 및 디지털 헬스케어의 선구자 권순용 교수, IT 산업과 미래비즈니스 전략을 이끌어온 강시철 박사가 공동저자로 엮은 신간이 출간됐다. 이들은 책을 통해 노화는 퇴보가 아니며 설계할 수 있는 미래라고 설교한다. 나노 로봇에서 생명공학, 재생의학, 뇌신경학, 엑소스켈레톤까지 초고령 사회에서 주목하는 노화 산업의 모든 것을 포괄해 기술로 삶의 방식을 바꿀 공식을 제안한다. 기술의 진보는 노인들이 다시 사회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기반이 된다고 분석하며 구체적인 실험과 연구를 나열해 짚어낸다.



## 존경하는 화가와의 대화를 그림과 텍스트로 유명하다

풍류, 그림  
김석 | 아트레이크 | 2만8000원



한국화가 조풍류는 목표 출신의 대가로 꼽힌다. 그가 캔버스로 펼쳐낸 세계는 한계가 없으며 모든 시선을 가둘 만큼 강렬하다. 이처럼 그의 그림이 가진 힘이 너무나 궁금했던 이가 있다. 바로 이번 신간을 쓴 진해 출신의 김석 작가다.

가만히 바라보게끔 만드는 그의 작품은 자연스럽게 "어떻게 이런 그림을 그리게 됐을까?"라는 질문을 자아낸다. 야생화부터 종묘와 인왕산, 서울 전경까지 조풍류 화가의 화풍 속에 빨려 들어가는 건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다.

존경했던 예술가의 세계를 깊이 헤엄치고자 시작한 이 책은 색다른 전개 방식을 취한다. 화가와 미술 전문기자가 둘밖에 나눌 수 없는 대화를 책 속에 그림과 함께 담아낸 것이다. 조 화가의 초창기 그림부

터 최근의 작품까지 수록했으며, 익숙한 풍경도 다르게 보는 그의 색다른 시선과 독창적 기법을 들여다 본다.

독자들은 페이지를 넘기며 조풍류가 풀어낸 한국 채색산수화의 매력과 깊이감을 고스란히 느끼게 된다.

예술가들은 '타고남'이라는 것이 있어야 하는데 이런 재능을 갖췄더라도 끊임없는 노력과 배움의 과정은 중요하다.

화가 조풍류의 본명은 조용식이다. 그가 조풍류가 되기까지는 수많은 시행착오와 시련이 함께했다.

그럴 때마다 조 화가는 "광석 하나를 캐더라도 수십 번 단련해야 얻고자 하는 보석을 얻을 수 있다"고 했던 리커란의 말을 떠올리며 묵묵히 자신의 그림을 그려나갔다.

이는 현재 한국 채색산수화의 새로운 지평을 연 그의 미술세계 개척으로 이어졌다.

조 화가의 그림과 그 속에 숨겨진 이야기를 다양하게 풀어내며 그의 화업을 함께 탐험하는 시간을 만끽해 보자.

박찬 기자